



제목	Popular Turkish Love Lyrics and Folk Legends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Syracuse University Press
발행일	2009. 10. 26.
저자	Talat Halman
출판도시	Syracuse
페이지수	85
ISBN 또는 ISSN	978-0815609209

내용 요약

아나톨리아 구비문학-민중시, 서정시, 이야기, 전설, 그리고 음악과 춤-은 터키 사람들, 특히 터키 시골 사람들이 창조적인 에너지를 생성하고 발산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. 터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서정적인 사랑 시와 민간 전설을 선별하여 영어로 번역하고 칼라 삽화를 실크스크린 인쇄의 채색화인 세리크래프 방식으로 처리해서 시적 아름다움을 더했기 때문에 이 책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매우 많다. 이 책에서는 터키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아나톨리아 이야기 세 개와 터키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네 명의 위대한 민중 시인을 일곱 개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한다.

맨 먼저 저자는 터키 알파벳과 영어식 발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. 그리고 유누스 에무레(1238~?)와 피르 술탄 아브달(1480~1550), 피르오올루(16세기 생존), 카라카오올란(생몰년도 미상)을 차례로 등장시키고 이들에게 각각 '정열의 야생 오리', '반역자 시인', '사랑에 빠진 영웅', '사랑의 음유시인'이라는 별명을 부여한다. 유누스 에무레 편 '후양', 피르 술탄 아브달 편 '텅 빈 요람', 피르오올루 편 '물이 새는 바가지'가 대표적인 터키 구비문학 작품이다.

이 책에 삽입된 세리크래프 방식의 총천연색 그림 속에는 거대한 자연 내지 변형된 자연과 외로운 인간이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다. 하지만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자연이 인간을 교란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느낌이 드는데, 그 이유는 각각의 그림이 아나톨리아의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민간 신앙이나 전설 속에 들어있는 인간 마음의 본성과 정신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했기 때문이다. 물론 시 애호가들은 문학과 예술의 조화로운 결합 형태인 이 작품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.